

직원관리가 양돈경영 성패 좌우한다

1. 효율적인 직원 관리보다 시급한 것이 인력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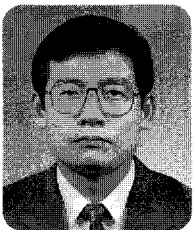
양돈산업은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폭과 내용이 아주 크고 빠르다. 돼지고기의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이 자꾸만 까다로워지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단계의 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를 맞았고, 콜레라, 구제역 등의 질병과 호흡기, 설사 등의 소모성 질병 또한 양돈경영 의욕을 자꾸만 꺾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양돈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의 전문 능력을 갖춘 후계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인근에 위치한 규모가 비교적 큰 이 지역에서 종돈공급의 거점 역할을 맡고 있는 농장의 인력난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논한 적이 있다. 농장 사무실에 걸려 있는 불과 1년 전에 촬영한 한 장의 사진 속에 보이는 얼굴들 중에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새로이 직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광고, 소개 등을 보고 문의를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이거나, 아주 학력이 낮고 주로 막일을 하던 경력자들이라는 사실을 두고 매우 걱정스러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 양돈산업이 처한 현실은 능력 있는 직원에 의한 농장 수익성 제고는 차치하고라도 농장의 기본적인 관리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의 인력확보가 보다 시급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이 현실을



김 두 환 교수
진주산업대학교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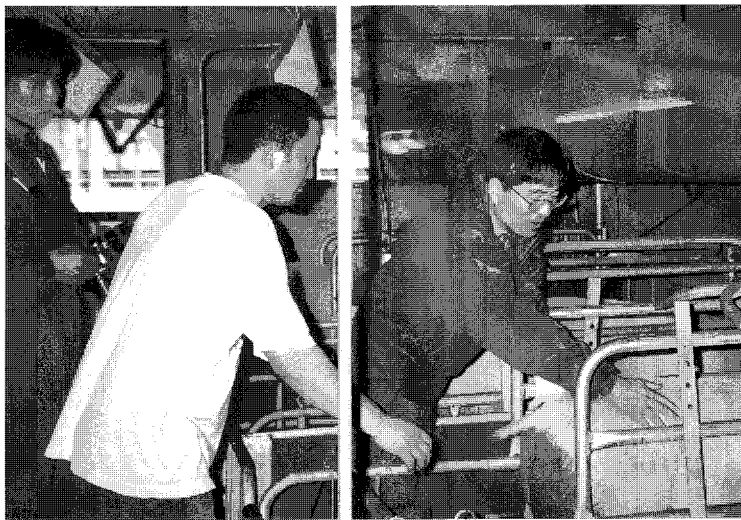
2. 능력 있는 직원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능력 있는 직원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능력 있는 개인, 경쟁력 갖춘 직원이 모여야 그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 향상과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10여명의 현장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농장에서 직원 추천을 의뢰받은 적이 있는데, 그 농장의 최고 관리자의 표현을 빌리면, “너무 많이 알거나 겉멋이 든 사람보다는 돼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얼핏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양돈장 직원으로서 4년 동안 축산학을 전공한 축산 관련학과 졸업생보다 더 좋은 자격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돼지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좋다니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인가?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 연봉 얼마를 요구하기 보다 연봉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찾아서 처리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사람,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 돼지에게 거부감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관리자가 바로 능력 있는 직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 즉 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했다고 해서, 또는 돼지를 접촉한 일천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농장에서 그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능력을 갖춘 직원은 어떤 사람인가?

연봉 얼마를 요구하기 보다 연봉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 일을 찾아서 처리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일에 매달리는 사람, 돼지를 사랑하는 사람, 돼지에게 거부감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관리자가 바로 능력 있는 직원이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양돈산업 내부 및 주변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분에 충실”하는 자세를 갖춘 인력, 철학을 가지고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는 인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양돈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욱 강조될 것이고,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는 확보한 신념을 가진 인력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3. 직원 능력이 양돈경영 성패를 좌우

양돈생산비와 경영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료비와 인건비다. 따라서 사료비 절감과 인력 절감은 농장 수익 증가의 바로미터라 할 것이다.

인력 절감에 의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인력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원의 정확한 관찰과 판단은 농장 수익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질병의 조기발견과 처치는 농장 수익을 나쁘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

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돼지에게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을 숙지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직원은 그 농장의 대들보와 같다고 할 것이다.

영국에서 발간된 “사람과 동물의 상관관계-집약축산 농장의 직원과 생산성 및 복지”라는 제목이 붙은 책자의 내용을 보면, 농장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돼지를 이해하는 직원이 관리하는 돼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여러 가지 반응들을 나타낸다. 또한 직원의 행동에 따라 돼지의 행동이 달라지며, 직원의 근무 자세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된다고 밝혔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그럴 것이라고 추측했던 사실들이 근래 속속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돼지는 돼지같이 길러야 한다’고 했던 대충대충, 더럽게, 무리하게 다루는 방식의 돼지 취급을 표현한 것과는 반대, 혹은 개선된 기술을 적용하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갖춘 직원이 양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장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4. 직원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능력 있는 직원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넉넉한 투자와 비전의 제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후계인력, 전문인력이 계속 이 산업에 뛰어 들 것이고, 좋은 직원이 될 것이다.

효율적인 직원관리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자.

먼저, 인정받는 직원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 직원으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양돈이 단순히 사료 주고 똥 치우는 과정, 돼지를 기르



▲ 양돈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의 전문능력을 갖춘 후계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 고급 단백질인 돼지고기라는 식품을 생산, 공급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양돈산업을 함께 이끌고 가는 동반자란 인식과 능력에 걸맞는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객관적이고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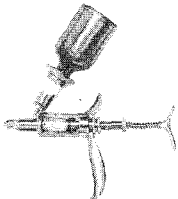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의 생명산업, 생명창고를 지키는 지킴이로서, 환경을 지키는 환경 수호자로서, 국가 기간산업을 지킨다는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술은 그 다음으로 중요할 따름이다.

결론적으로 양돈산업의 최종 산물인 돼지고기를 맛있고, 품질이 우수하고, 깨끗하게 생산하여 안전하게 소비자의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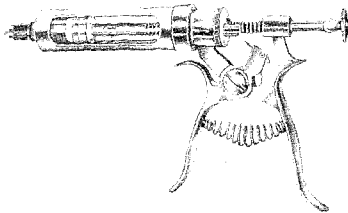
탁에 공급하기 위한 모든 과정은 "사람"이 행한다는 것이다. 좋은 사료, 좋은 시설, 타고난 유전능력이 좋은 종돈 등이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최고 경영자의 정확한 판단과 농장 직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가 양돈경영 성과를 좌우한다.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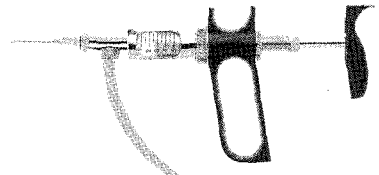
각종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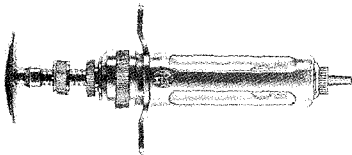
① FERROMATIC 주사기(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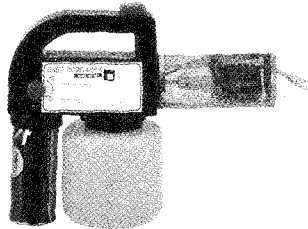
② REVOLVER 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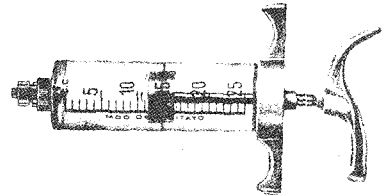
③ SOCOREX 연속주사기(1-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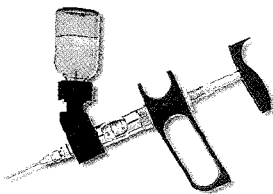
④ 철제주사기(10, 2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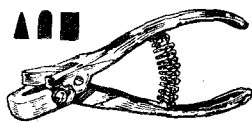
⑤ 휴대용 연막소독기(가스사용)



⑥ P.V.C 주사기(반영구) 10ml, 20ml



⑦ SOCOREX 연속주사기(병장착용)



⑧ 이각기(귀절단)

KW 강 화 축 산

주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83-11
 ☎ 305-2548, 374-7013
 H·P: 011-9787-2548
 FAX: (02)308-1030